

## 계명문화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 졸업생 권순왕 씨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



계명문화대학교(총장 박승호) 세무회계정보과 졸업생 권순왕씨는 지난 1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 최종합격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권순왕씨는 대구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계명문화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에 입학하여 2011년 2월에 평점 4.39의 높은 학점으로 졸업하였다.



졸업 후 대기업 입사를 목적으로 취업준비를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보험설계사로 사회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대학에서 공부한 세법이 유용하게 사용됨을 깨닫고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보험회사를 퇴사하고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본격적으로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한 결과 2014년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차시험으로 2차에 응시하였으나 고배를 마시고 이듬해에 1차 유예의 신분으로 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또 한번의 고배를 마셨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선상에서 상경하여 수험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계속되는 낙방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화점 매장 판매원, 도시락 배달, 공장생활을 하면서 수험생활을 병행하여 2021년에 1차와 2차시험에 최종합격하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합격하겠다는 의지로 제5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권순왕씨는 “처음에는 세무사 시험은 특별한 누군가가 합격하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도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지금도 세무사 또는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대구에는 세무사 양성학원도 없으나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흔들림없이 준비한다면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세무회계정보과 학과장 김영락 교수는 “권순왕 학생은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합격의 영광을 얻게 되었으며 더욱이 공업계열 고교 출신자로 세무사에 합격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계명문화대학교 세무회계정보과에서는 지금까지 약 20여 명의 세무사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세무업계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 또한 세무공무원과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회계책임자와 담당자로 최고의 역량을 보이고 있다.